

### ◎ 《백두산8경》 (8) ◎

조선의 자랑이며 세계의 명승인 백두산천지에서 산천어들이 떼지어 노는 풍경은 천하제일명산의 특이한 풍치의 하나로서 만사량의 경란을 자아내고있다. 이곳에서는 세계적으로 제일 큰 산천어도 발견되었다. 바람 한점 없는 날 천지에 저녁노을이 지면 천지산천어들이 먹이를 찾아 물위로 솟구친다.

시킨 다음 천지에 놓아 주어 번식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77(1988)년 8월 백두산에 오르시어 지금까지 화산분화구에 생긴 못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백두산천지에 산천어들이 떼를 지어

량원소들이 거의 다 들어 있다. 광물질총량이 약 350ppm인 천지물속에는 수소탄산이온, 칼슘, 마그네슘, 칼리움, 나트륨 등이 알맞게 들어 있다. 천지물은 위생학적으로도 깨끗하며 그 물맛이 대단히 좋다. 천지에는 산천어가 먹을수 있는 부유식물

량이 7.7kg인 천지산천어가 채집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천지산천어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제정되었으며 국제생물권보호구의 보호대상으로 철저히 보호관리되고있다. 오늘도 낱알이 그 수가 늘어나고있는 천지산천어는 백두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고있다.

## 떼지어 노는 천지산천어

원래 화산분화구에 생긴 못에서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백두산천지에서 산천어들이 떼지어 다니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현상이다. 백두산천지는 그 둘레에 높은 외륜산들이 절벽을 이루고있기때문에 외부로부터 그 어떤 물줄기도 흘러드는것이 없으며 오랜 기간 몇 종류의 하등생물들만이 있었다. 수십년전 삼지연군사람들과 협동하여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원들은 산천어를 환경순

산다는것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현상이라고 하시면서 매우 기뻐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1(1992)년 12월 천지의 자연환경에 순응되고 형질적으로 다른 지방의 강과 호수의 산천어와 다른 백두산천지의 산천어를 친히 《천지산천어》라고 이름지어주시였다. 백두산천지물은 맑고 깨끗할뿐 아니라 바다새와 온천을 비롯한 지하수가 많이 포함되기에 광물질 등이 보통 물에 비해 많으며 사람들의 건강에 필요한 미

과 수중곤충, 천지상공을 날아다니다가 떨어진 곤충들의 양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 따라서 먹이원천이 풍부하다. 천지산천어는 9~10월에 천지연안의 부석목래판을 약간 우묵하게 밀어제끼고 1마리가 600~700개 지어 1000개 이상까지의 알을 낳는다. 알을 밑에서 100일이 상 걸려야 알에서 새끼가 까난다. 주체81(1992)년 부터 현재까지 길이가 30~70cm인 천지산천어가 많이 채집되었는데 주체89(2000)년 10월 17일에는 길이가 85cm, 몸질

량이 7.7kg인 천지산천어가 채집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천지산천어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제정되었으며 국제생물권보호구의 보호대상으로 철저히 보호관리되고있다. 오늘도 낱알이 그 수가 늘어나고있는 천지산천어는 백두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고있다. \* \* \* \* \* 참으로 백두산은 천출명장들의 불멸의 자취가 력력히 어려있는 혁명의 성산이며 웅장함과 숭엄함, 신비로움과 절묘함으로 자랑높은 천하제일명산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생애와 더불어 세세년년 빛을 뿌릴 《백두산8경》을 태양민족의 만년채보로 길이 전해가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에서 더 큰 비약과 전진을 이룩해나갈것이다.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 연구사 박사 최근섭

### -2017년 가을철상품전시회-

## 우수한 상품들로 인기를 모은 전시회

얼마전 평양에서 2017년 가을철상품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820여점의 질고 다양한 상품들이 출품된 이번 가을철상품전시회장은 수많은 참관자들로 련일 흥성거리었다. 인기있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많이 생산하여 온 나라에 널리 알려진 류원신발공장과 평양곡산공장, 원산구두공장에서 출품한 상품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특별히 끌었다. 류원신발공장에서 다중화, 다양화, 경량화된 각종 운동신들을 출품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는가 하면 품위가 질좋은 고급구두들을 출품한 원산구두공장매대도 많은 사람들로 붐비었다. 누구나 즐겨 찾는 우수한 명제품, 명상품들은 식료품매대와 화장품매대에도 그 득히 쌓여있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였다. 전시된 어린이들의

발육과 건강에 좋은 영양식품들과 갖가지 음료들은 젓 먹이어린이가 달린 어머니들의 호기심을 끌었다가 하면 향료 및 화장품공학연구소에서 첨단기술을 리용하여 개발한 여러가지 기능성 화장품들은 처녀들속에서 수요가 매우 높았다. 이번 가을철상품전시회에서 특별히 인상적것은 각 도특산물매대였다. 강원도 안변지방의 유명한 감으로 만든 곳감이며 량강도 대홍단군의 감자, 자강도와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도의 깊은 산속에서 채취한 산나물을 비롯한 특색있는 지방특산물들은 도 가정주부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가을철상품전시회는

계절적특성에 맞게 가을철과 겨울철에 사람들의 생활에서 많이 요구되는 옷과 신발들, 농토산물들을 비롯한 수많은 상품들이 출품된것으로 하여 더욱 관심을 모았다. 또한 상품을 생산한 공장, 기업소들이 매대를 차려놓고 판매도 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공장에서 생산하는 상품들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더 잘 알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2017년 가을철상품전시회는 자력자강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강류성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한 운동신들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 등록한 국가비물질문화유산에는 가야금제작기술도 있다. 가야금은 나무로 된 장방형의 현악기로서 21개의 줄을 가지고있으며 이 줄들을 손가락으로 뜯어내어 소리를 내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지탄악기이다. 가야금은 6세기 초엽에 가야국(금관가야)의 악사로 활동하던 재능있는 음악가 우륜이 창안 제작하였으며 가야라는 나라에서 나왔다고 하여 가야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가야금의 구조는 울림통, 줄, 이동패, 줄베개, 머리, 꼬리, 줄조임못, 다리, 울림구멍 등으로 되어있으며 줄조임개가 따로 있다.

## 국가비물질문화유산 가야금제작기술

가야금의 제작방법은 우륜이 처음 가야금을 만든 6세기 초엽으로부터 오랜 역사적과정 을 내려오면서 오늘까지 기본상 자기 제작방법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하게 개량되어왔다. 가야금은 첫 시기 12줄로부터 13줄, 19줄로 개량되어왔으며 오늘날에는 21줄로 늘어나 음역을 보다 넓히고 조를 쉽게 할수 있도록 제작방법이 발전하였다. 가야금의 제작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는데 나무선력과 커기, 말림공정과 제작공정으로 볼수

있다. 가야금의 앞판은 소리를 울림을 형성하는 역할에 맞게 목재의 년륜이 비교적 성근 오동나무로 만들며 소리를 반사시켜주는 진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뒤판은 밤나무, 가래나무, 대추나무 등으로 만든다. 대체로 30년정도 자란 나무가 좋은데 정목벌(널판의 면이 목재의 년륜과 수직이거나 수직에 가깝게 썬 널판)로 썬 앞판과 뒤판, 줄조임판, 마구리, 머리판, 울림통의 헤두리장식판, 이동패 등 부품들을 따로따로 만들

어 조립하는 방법으로 제작한다. 이렇게 기본제작공정이 끝나면 나무결이 그대로 살아나게 하는 인화법으로 도색을 하며 마감으로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 줄을 메운다.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가야금은 구조가 간편하고 탄력이 있으면서도 그 울림이 부드럽고 우아하며 연주법이 다양하고 배우기도 쉬우므로 널리 보급되고있다. 오늘 가야금은 우리식의 배합관현악, 반주음악, 기악곡, 독주곡들의 연주에 쓰이면서 우리 민족음악의 고유한 흥취와 멋을 살리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 본사기자

## 사화 리규보와 《해좌7현》 (6)

글 전철호, 그림 박봉혁

... 농사군의 피땀을 빨아 먹고서는 제 팔자 좋아서 부자가 되었다네 이 시는 《농사군에게 맑은 술과 흰쌀밥 먹기를 금지했다는 말을 듣고》의 한구절이었다. 리규보는 어느 시들처럼 이 시도 자기가 체험한 것을 그대로 글줄에 옮겼을뿐이었다. 어느날 개경거리에 있는 무신의 우두머리인 리의민의 집앞을 지나던 리규보는 그 집이 대궐이 왔다 울고갈만큼 하도 크고 요란하기에 적당히 구실을 대고 들어 가보았다. 솟을대문안에 들어서니 넓은 뜰안에 불당의

본전같이 험난하고 웅장한 집들이 여러채나 들어앉아있었는데 방마다에서는 희한한 기물이며 희귀한 보물들이 령롱한 빛을 뿌리였고 고간마다에서는 쌀이며 고기, 술이며 비단 등 갖가지 재물들이 차고넘치고있었다. 이 집에서는 개들도 흰쌀밥에 고기국만 먹다보니 이제는 입들이 높아져 그것도 잘 받아먹지 않는다는 말까지 듣고나니 어이가 없어 입이 열리지 않았다. 이런 큰 도적이 몇이만 더 있어도 나라는 숨이 막혀 쓰러질것이었다. 하다면 시골살이는 어떠했는가. 천하를 먹여살리는 농사군들이 웃이라고 걸친 것은 하나같이 덧길고 또

덧기운 누더기였고 먹는 것이란 오로지 풀뿌리를 넣고 끓인 뽕떡하고 쓰디 쓴 죽물뿐이었다. 날에날마다 리규보의 눈에는 험털고 굶주림에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가난한 농사군들의 먼지밖에 없는 집들을 털어내기 위해 악을 쓰며 돌아치는 아전나부랭이들과 라졸들, 땅인자라는 부자들들의 행패질이 계속 비쳐들었다. 그런 관국인들도 조정이라는데서는 농사군들이 맑은 술에 흰쌀밥을 먹고 사는줄로만 알고 그것을 먹지 말라는 금지령까지 내렸으니 이야말로 소가 웃다가 꾸레미러질노릇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농사군에게 맑은 술과 흰쌀밥 먹기를 금지했

다는 말을 듣고》가 적혀 있는 종이말이를 내보이며 《바로 이 시에 백운 거사의 의로운 기백이 실려있거든. 이렇게 진짜 시라고 할수 있지 않겠소.》라고 리인로가 입을 열자 모두가 그렇다고 입을 모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가식없는 칭찬에 리규보는 어쩔 수 없이 웃으며 응수했다. 《저는 단지 불쌍한 백

어느 여름날 글밖에 모르는 한 시골선비가 집에 독을 하나 장만해야 할 일이 생겨 장에 나갔다. 《독이란 좋고 나쁜것이 있으니 아무나 가서는 랑패되기 십상이야. 아무래도 이런 일에서는 글공부를 많이 한 내가 가야

이런 물건을 어디에 쓰겠소.》 선비의 말에 독장사는 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나서 닝큼 독 하나를 들어 바로 세워놓았다. 《자, 이건 뭐요?》 바로 세워놓은 독을 바라보던 선비는 무릎을 탁 치며 좋아하였다. 《이게 바로 독이

요.》 독장사는 다시 독을 뒤집어 놓았다. 《자, 이건 뭐요?》 선비는 그만 말문이 막혀 버렸다. 《독이란 참 묘한 물건이군. 바로 세워놓으면 독이 되고 엎어놓으면 다른 물건이 되니 책에도 써여져있지 않는 그 조화를 어떻게 알겠소.》

## 유모아 독을 사러 간 골방선님

이 기간 리규보가 써낸 글을 보면 《농부를 대신 하여 읍노라》, 《이불안에서 웃노라》, 《군수 몇놈이 퇴물을 받다가 죄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와 같이 가난한 백성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탐관오리들의 학정을 날카롭게 폭로한 작품들로서 그가 한 생 지은 작품의 절반을 차지할만큼 수백편에 이르렀다. 리인로의 《들국화》, 《산중살이》라든가 림춘의 《리담지에게》, 《벗에게》 등 《해좌7현》들의 적지 않은 시들도 이 시기에 창작되고 다듬어 진것들이었다. 이렇듯 《해좌7현》들의 영향을 받아 젊은 리규보는 모방과 형식에 치우쳐서 눈물겨운 백성살이를 외면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태평시절》이라고 미화분식하며 정계에

두 새버릴게 아니요. 그리

미화분식하며 정계에